

행복한 금요 편지

나의 행복


원광호¹⁾
전 국회의원

나는 유난히 일찍부터 결혼식 주례를 오랫동안 경험한 탓에 지금까지 3천번 이상 결혼식장에서 행복강연을 한셈이다. 그때마다 행복이란 무엇이며,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저런 행복론을 늘어놓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. 그러나 막상 그렇게 행복을 잘 알고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처럼 주례사를 해왔지만 실상 뒤돌아보면 과연 나는 행복했으며 지금도 행복한가? 자문자답해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다.

그도 그럴 것이 허구한 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변변한 나들이도 못했고 맛있는 먹거리도 찾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은 물론 높은 점수를 받을리 없고 거기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살림에 신경 쓴답시고 아이들 잠들었을 때 집을 일찍 나오고 또한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곤히 잠들어있을 때 집에 들어가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잠자리에 들곤했다. 국회의원을 마치고도 한글과 세종대왕에 미쳐 국내는 물론 요즈음은 해외 순회강연에 몰두한 처지라 더욱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없는 실정이다.

이러니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자문해 본다.
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행복기준을 어디에 둘까?

1)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원광호 원장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원 원장을 직임하고 계시며, 전 14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.



사람마다 행복 기준치가 있고 만족감은 분명 다를 것이다. 하지만 흔히들 행복기준을 말할 때나 아니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'너는 어디의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?, 몇 평이냐? 자동차 차종은 뭐냐? 남편은 이번에 전무 됐다.....', 너는 정말 행복하구나, 부럽다 등등.. 수다가 일색이다. 과연 이와같은 조건들로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? 어느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난다.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기준 첫번째가 식구들이 다함께 모여 저녁을 먹으며 그날에 있었던 즐겁고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고 이야기 한다든지 온 가족이 오페라, 음악회, 영화를 보고 와서 평가하고 토론하고 웃고 즐기며 식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을 보았다. 이와같이 행복은 그나라 문화와 습관에 따라 행복기준이 다를 수 있었다.

이 기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위로하고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을 찾겠다는 다짐을 해본다.

2016. 5. 30.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'행복한 금요편지'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